

조화·융합·열정·평화... ‘평창의 메시지’ 울려 퍼진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의 모든 것

‘한국전통문화-ICT기술 접목’ 메시지 전달
메인스타디움 오각 모양으로 오륜 차별화
개회식 ‘함께 만드는 평화’, 폐회식 ‘새 미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의 키워드는 조화·융합·열정·평화의 네 가지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메인프레스센터 강원룸에서 개·폐회식 연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송승환 총감독을 비롯한 감독단, 김대현 문화국장, 강희엽 수송교통국장, 윤순근 배뉴운영국장 등 조직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폐회식의 연출과 방한 대책 등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인이 공감하는 개·폐회식의 연출을 위해 송승환 총감독을 선임했고, 안무와 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지닌 인사를 여럿 발탁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은 2월 9일, 폐회식은 2월 25일 오후 8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은 동계올림픽 최초의 전용 공연장으로 오륜을 상징하는 오각의 공간

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직사각형식 스타디움과 차별화를 둔 점이 눈에 띈다. 송승환 총감독은 이를 두고 “어떤 좌석에서도 무대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조화·융합·열정·평화

이번 개폐회식 공통 주제인 조화, 융합, 열정, 평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송 총감독은 “음악 양이 조화를 이룬 태극기를 비롯해 건축과 미술, 음악 등 한국 전통문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화’의 정신을 강조했고, 한류를 비롯한 한국의 현대 문화예술과 ICT기술 강국 도약의 바탕이 된 한국인 특유의 ‘융합’ 정신을 표현했다”며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일어난 한국인의 뜨거운 ‘열정’과 협력을 넘어 세계 ‘평화’ 시대로 나아가자는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Peace In Motion’ 평화를 만드는 개회식

개회식의 주제는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Peace In Motion)’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 평화의 의미를 전하고, 연결과 소통의 힘을 통해 세계가 함께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세계인을 맞이하는 한국의 종소리가 세상을 하얀 얼음으로 만드는 장면으로 시작하며, 5명의 어린이들이 모험을 통해 평화에 대한 답을 찾는 모습을 그렸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브리핑이 23일 강원도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열렸다. 개·폐회식 연출을 맡은 송승환 총감독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개회식 연출을 맡은 양정웅 총연출은 “어렵거나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평화를 상징하는 내용을 보여주려 한다”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공감할 때 발생하는 행위가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강조했다. 모든 게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누군가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5명의 어린이들이 시간여행을 통해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며 “한편의 겨울동화처럼 꾸몄다. 마치 한 겨울

밤의 꿈처럼 동화 같은 세상으로 관객을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회식, 다짐과 도전의 역사 시작

폐회식의 주제는 ‘새로운 미래(Next Wave)’다. 기존의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류의 도전정신을 되새기며, 평창올림픽을 통해 미래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비상을 시작하자는 뜻이다. 무엇보다 세계인에게 ‘차이와 다름’은 서로를 가로막는 벽이 아닌, 더 멀리, 높이 날

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폐회식 연출을 맡은 장우정 부감독은 “평창올림픽은 끝나지만 또 다른 다짐과 도전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조화와 융합의 가치를 음악과 춤, 영상, 미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옴니버스 형식을 띠고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존의 길이로, 우리가 염원하는 평화의 모습을 전달하고 싶다. 시대의 조화가 핵심인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의미를 전달하려 한다. 역동적인 현대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뜻밖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 참가, 개·폐회식과 관련 없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개·폐회식 내용의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공동 입장할 때 한 반도기를 들고 나오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고, 송 총감독도 “최초에 평화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모든 준비를 했다. 북한의 참가로 우리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특별히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남북 합동공연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 공연을 할 수도 있다는 얘지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평창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지붕 없는 스타디움, 방한용품·방풍막 총동원

관람석 방풍막 설치·방한용품 6종 지급
난방쉼터 18소·히터 40개 배치로 대비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은 지붕이 없는 개방형 구조다. 동행태의 스타디움과 견줘 추위에 취약한 것은 당연지사다. 자연스럽게 개·폐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출연진과 관중들의 방한 대책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메인프레스센터 강원룸에서 열린 미디어브리핑 행사에서 방한 대책을 공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관령의 2월 평균기온은 영하 4.5도, 최저기온은 영하 14.8도로 기록됐다. 강풍을 동반하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혹한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창은 한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강설과 강풍이 심하다. 모든 관객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하는 한편 방풍막 등을 설치해 추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조직위가 마련한 대책은 방한시설 설치, 방한용품 지급, 운영 및 홍보의 세 가지다. 올림픽스타디움의 관람석 상·하단부에 방풍막을 설치했고, 곳곳에 난방쉼터(18소)와 히터(40개)를 배치했다. ‘방한용품 6종세트’는 이 위원장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운 부분이다. 개·폐회식 입장 관객 전원에게 판초우의와 무릎담요, 핫팩방식, 손 핫팩, 발 핫팩, 방한모자의 6개 품목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다른 동계올림픽에선 6종 세트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응급 의무실을 확대 설치한 것도 눈에 띈다. 의무실을 기존의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의료 인력도 52명에서 165명으로 크게 늘렸다.

평창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도핑에 발목잡힌 빅토르 안, 평창행 스톱

(안현수)

평창올림픽 앞두고 금지약물 적발
IOC 자체조사 도핑 리스트에 포함
올림픽 6관왕 안, 불명예 은퇴 위기

길고 긴 영욕의 세월을 보낸 ‘빙판 위의 풍운아’가 다시 한번 벼랑 끝에 몰렸다.

남자쇼트트랙 1인자로 꼽히는 빅토르 안(33·한국명 안현수)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출전 불발 위기에 놓였다. 사유는 금지약물 적발이다. 23일(한국시간) 러시아 다수 언론은 “빅토르 안이 평창올림픽 출전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추려낸 러시아 선수단 도핑(금지약물 복용) 리스트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두고 캐나다 법학자 리처드 맥라렌 교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가 벌인 조직적 도핑 은폐 실태, 이른바 ‘맥라렌 보고서’를 폭로했다. 이에 IOC는 러시아 선수단의 국가차원 올림픽 출전자격을 박탈했고, 도핑 검사를 무사통과한 선수들에 한해 개인 자격으로 평창 땅을 밟을 수 있게 했다. 이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IOC에 평창올림픽 참가 희망 선수 500명 명단을 제출했다. IOC는 최근 자체 조사를 벌여 111명을 제외했다. 현재로서는 여기에 빅토르 안이 여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통산 6관왕에 빛나는 쇼트트랙 황제가 불명예 은퇴 위기에 몰린 셈이다.

빅토르 안은 한국빙상을 이끈 골자의 스타플레이어였다. 2002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에서 17살 나이로 1000m 결선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은 빅토르 안은 4년 뒤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1000m와 1500m, 5000m 계주를 휩쓸며 자타공



쇼트트랙 황제의 금빛 질주가 멈출 위기에 처해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빅토르 안이 금지약물 복용 논란으로 참가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스포츠동아DB

인 1인자가 됐다. 김동성(38)을 이을 또 하나의 쇼트트랙 황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빅토르 안은 토리노동계올림픽 이후 방상계 파벌 싸움에 휘말려 갈등을 겪었고, 무릎 부상까지 당해 수술대만 세 차례 올랐다. 절정의 기량을 펼치려고 절치부심했던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역시 남의 잔치가 됐다.

결국 빅토르 안은 일생일대의 결심을 한다. 러시아로의 귀화였다. 2014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력 강화를 노리던 러시아와 뜻이 땀했다. 2011년 8월 고심 끝에 러시아인이 된 빅토르 안은 다시 정상에 올랐다. 소치올림픽에서 500m, 1000m, 5000m 계주를 연달아 제패하고 8년 만에 올림픽 3관왕이 됐다. 그러나 이번 출전금지조치로 불명예 은퇴 위기에 몰린 셈이다.

그동안 빅토르 안은 한국빙상을 이끈 골자의 스타플레이어였다. 2002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에서 17살 나이로 1000m 결선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은 빅토르 안은 4년 뒤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1000m와 1500m, 5000m 계주를 휩쓸며 자타공

고통 기자 shutout@donga.com



평창행 품은 ‘北 피겨 커플’의 훈연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페어 부문에 출전하는 북한의 려대옥(왼쪽)-김주식이 공식훈련일인 23일 연기에 열중하고 있다. 둘은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한다.

타이베이(대만) | AP뉴시스

상상 그 이상의 기술...평창은 ‘ICT 올림픽’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

5G 서비스·AI·VR 등 최첨단기술 동원
지상파 3사 통해 UHD화질 생중계 지원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23일 강원도 강릉 씨마크 호텔 바다홀에서 국내외 기자단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문진흥재단이 주관했다.

‘세계 최초 ICT올림픽, 평창’이 우리나라가 내세운 평창 동계올림픽의 또 다른 명칭일 정도로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의 ICT 기술력이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5G 서비스를 비롯해 사물인터넷, 초고화질영상(UHD),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최첨단기술

이 올림픽에서 총 동원될 예정이다. ‘ICT로 하나 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컨퍼런스는 ICT 올림픽 평창에서 활용될 최첨단 기술들을 국내외 취재진에게 소개하고 기술의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발표자 이민규 한국언론학회 회장은 ‘기술혁신과 저널리즘 : 구텐베르크에서부터 AI까지’라는 주제로 기술이 저널리즘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인쇄술이라는 지식혁명이 저널리즘의 태동인 신문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TV, 인터넷, 모바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시대까지 저널리즘의 변천사를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시각으로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자 권중오 SBS 스포츠부 부장은 ‘올림픽 중계 변천과 UHD 중계 등 평창의 새로운 시도’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올림픽 중계방송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해 온 방송기술의 변천사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전 세계 25억 명이 시청할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거의 대부분의 중목이 올림픽 주관방송사 SBS를 비롯한 국내 지상파 3사를 통해 UHD 화질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자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통신파트너사 kt의 박종호 상무는 ‘차원이 다른 ICT올림픽 혁신기술’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kt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적용하고 있는 5G 등 ICT올림픽 혁신기술들을 시연과 함께 소개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한 5G 기술의 원리 및 작동 시연과 함께 kt가 구축한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통신 및 방송 중계 인프라를 비롯해 ICT 주요 시설, 유선 무선 방송에 특화된 서비스들을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자 김병현 MBC 전국부 차장은 ‘다가온 VR, 다가올 VR : 새로운 영상 기술과 이용자 경험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최근 주목받는 VR 기술의 특성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강릉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